

네번째 동영상: 마크 퍼슨, 퍼슨스 연합감리교회, 드루어리빌, 버지니아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는 어떤 역사의 이야기들이 있습니까? 그 이야기들을 간수하여 기억하고 있고, 말하는 이들은 누구인가요? 이야기를 써내려 가고 심지어 바꾸기도 하는 힘을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 글을 읽고 쓰는 것을 배우는 기본 권리를 가진 사람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이야기는 혹시 출생지, 또는 피부색에 따라 이미 정해진 틀에 맞추어지지 않는습니까?

버지니아의 많은 이야기들은, 지배적 위치의 백인 문화의 관점에 따라 들려지기도, 또는 숨겨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동영상은 노예제도가 성행하던 때 일어난 한 난(亂)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하기에도, 기억하기에도, 그리고 이해하기에도 매우 복잡한 이야기입니다. 필자들은 역사적 진실에 기반하여 이 이야기에 다가갔고, 우리를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께 인도하고자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에는 각자가 지닌 사회적, 종교적, 그리고 정치적인 배경의 영향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내 가족, 그리고 종교적 전통에 비추어서 읽는 것입니다.

이 과를 공부할때, 부디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을 모셔들임으로써 나눔을 가지시기를 초청합니다.

여는 기도 (인도자)

소그룹 언약

성경본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취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요 1:1-5)

새 세상의 빛

초기 버지니아인들은 하나님이 어둠이 아닌 희망과 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와 그들의 자손들을 두고 마음속으로 그렸던 꿈은 무엇이었습니다?

미국의 헌법 제정자들은, 모든 사람이 평등하며 생명, 자유 및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는 근본적인 비전을 선언했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이 선언을 통해 드러났습니까? 어떠한 어두움이 그들로 하여금 인간을 사고 파는 것을 받아들여 법으로 제정하도록 하였나요?

프랜시스 애즈베리와 토마스 코크가 미국에 감리교를 심을 때에, 그들이 전한 비전은 “노예제도는 하나님의 법에 위배되며 사회를 해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감리교인들 중에는 남녀, 아이들을 해방시킨 이들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노예제도를 허락하셨고 따라서 그것이 악하지 않다고 믿은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노예제도를 지키는 것이 성경의 권위를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성경의 권위를 옹호한 이들은 노예들과 달리 지식인들이었습니다. 1819년 버지니아는 법을 정하여 자유인 흑인들과 혼혈인들이 노예 신분인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임들을 금지했습니다. 이 법을 어긴 사람에게는 20대의 매가 주어지도록 했습니다.

감리교인이며 경건한 사람이었던 벤자민 터너는 나다니엘 터너, 즉 넷이라고 이름한 아이의 주인이었습니다. 그는 넷이 매우 어린 나이에 글을 깨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넷이 성경을 읽도록 했습니다. 넷은 그리하여 예수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 된 자에게 자유를, 눈 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눅 4:18) 라고 말씀하신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삼십 년 이상의 기간 중 노예였던 넷에게는 다섯 명의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밑에 있었던 주인은 아홉 살의 백인 소년이었습니다. 넷은 주인으로부터 도망쳤던 그의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사람을 소유물로 매매하는 제도를 피해 도망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공부했으며 ‘서민의 선지자’라고 불리웠던 넷은 농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가졌던 비전은 “여호와와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 (사 61:2) 하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성경은 하나였지만 다른 해석과 비전을 두고 일어난 다툼은 버지니아의 역사의 뿌리였습니다. 소위 ‘구속적 (redemptive)’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된 폭력, 백인 우월주의, 축복받은 유럽인, 저주받은 아프리카인, 원주민들은 야만인이라는 시각 -- 이것은 이 땅을 덮었던 어두움이었습니다. 이 어둠에 대항하는 빛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비디오 시청

토의를 위한 질문

넷 터너의 반란에 대한 당신의 느낌과 반응은 어떤 것입니까? (서로의 대답을 비판하거나 고치려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경청해 주십시오)

불의에 대한 저항은 교회의 중심적인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따른 사람으로서 당신이 존경하고 기억하는 사람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넷 터너의 이야기에서 드러나는 우리 역사의 상처를 치유함에 있어 교회가 가지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오늘 차별과 갈라짐의 유산을 안고 우리 속에 사는 이들은 누구입니까?

넷 터너는 칼을 써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노예 주인들은 힘, 재산권, 특권이라는 칼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의 인간성을 말살했습니다. 성경은 힘으로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도구로 전락되었습니다. 그들에게 성경의 말씀들보다 더 높은 권위는 없었습니다.

성경 본문: “예수께서 나아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 28:18-20)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께서는 모든 권세를 받으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계명들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강조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제자가 되고자 하려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길 외에는 없다.”

행동하는 제자도: 사랑의 능력

인간은 먼저 가족을 사랑하고, 다음으로 친척들과 친구들을 사랑하게 되며, 신앙 공동체와 국가로 사랑의 범주를 넓혀갑니다. 사랑의 부르심은 과연 어디까지입니까? 우리는 사회적 관습과 정치적 소속이 다른 이들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처음 보는 낯선 이에게도 사랑의 손길을 내밀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으로 모든 이들을 제자 삼겠습니까?

스스로를 위한 묵상

다른 이들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스스로를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혹시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벽이 있나요? 당신은 본인이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십니까?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방법들에 대해 묵상해 보십시오.

마치며

질문, 코멘트 또는 공지사항을 나누십시오. 인도자의 기도로 마칩니다.

발표자 소개

마크 퍼슨씨는 버지니아 사우스햄튼 카운티의 드루어리빌에 위치한 퍼슨스 연합감리교회를 설립한 존 퍼슨의 직계 후손이다. 그는 1838 년 세워진 이 교회에서 재단이사, 회계, 그리고 역사위원으로 섬기고 있다. 넷 터너의 성경이 워싱턴 디씨에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역사 및 문화 박물관 (National Museum of African American History and Culture)에 기증됨과 관련하여 가족 대변인 역할을 해왔으며, 넷 터너의 성경과 관련된 그의 가족사를 주제로 한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출연했다.